

전남대병원, 이번엔 품앗이 채용 의혹

“간부들 자녀 면접에 서로 들어가 최고점”

박용진 “불공정 소굴 만들어...병원장 사퇴해야”

직원 채용과정에서 ‘아빠찬스’, ‘삼촌찬스’, ‘남친 아빠찬스’ 논란이 제기된 전남대병원에서 이번엔 간부들 간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까지 불거졌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대병원의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간부 A씨가 2018년 간부 B씨의 아들이 지원했을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98점이라는 면접 최고점을 줬다”며 “높은 면접점수를 바탕으로 B씨의 아들은 전남대병원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A씨의 아들이 전남대병원에 지원했을 당시에는 B씨가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마찬가지로 98점이라는 면접 최고점을 줬다”며 “이로 인해 A씨의 아들도 1등으로 합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와 함께 5년 2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 등 직속부하”라며 “아들 채용에 면접관으로 낯익고, 부하직인 아들이 응시하니까 자기가 면접관으로 들어가 채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황당한 품앗이 채용비리”라며 “선후배 콤플렉스가 병원 업무 발전에 실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 취업비리에 콤플렉스를 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15일 전남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아빠찬스’와 ‘삼촌찬스’ 등의 채용비리가 확인됐었다. 특히 아들 여자친구의 채용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전남대병원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B씨가 2건의 채용비리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채용을 담당하는 위치에서 면접에도 참여하는 등 채용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며 “전남대병원의 채용비리 핵심 당사자가 처벌은 커녕 채용비리를 계속 저지할 수 있는 지리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 감사로 인한 처벌을 받은 뒤인 올해 3월 이후에 시험관리위원 4명, 면접위원 3명, 서류전형위원 2명을 참여했다”며 “이게

말이되느냐.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면접에 참여한 것인데 전남대병원 채용이 공정하다고 자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관련 내용은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병원장이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며 “병원장의 무능과 무책임이 대한민국 유력 병원인 전남대병원을 채용비리와 온갖

불공정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대한민국 청년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교육부는 제도개선을 하기 전에 물감사, 솜방망이 처분 그만해라”고 촉구했다.

뉴스1



자동차배출가스 니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 21일 오후 대전 서구 가창교외거리 인근도로에서 서구청 환경과 직원들이 배출가스 측정기를 이용해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늘어나는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47개 위험지역 특별점검

정부,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

정부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가운데 노인 보행자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29일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체 보행 사망자 가운데 노인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8.1%에서 2016년 50.5%, 지난해 56.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0.1%, 2016년 39.9%, 2018년 39.3%로 평균 40%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7건

이상의 노인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가 일어났거나, 노인 보행자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전국 47개 지역을 우선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47개 지역에는 15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16명이 부상당한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역 주변, 13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역 주변 등이 포함돼 있다.

점검단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진단,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해 현장별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해당 지자체에 전달되며 연말까지 개선 권고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 지원도 할 계획이

다.

한편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반경 200m 이내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3건 이상이거나 사망사고가 2건 이상이었던 529개소 사고 2156건을 분석한 결과, 병원과 시장, 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병원 주변이 654건(31%), 시장 주변 458건(21%), 역·터미널 주변 330건(15%), 경로당 등 노인시설 주변 304건(14%) 순이었다.

조성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분석결과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병원이나 시장을 중심으로 사고가 많았다”면서 “현장점검을 통해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신속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30대 일용직 노동자 2명 나란히 입건

막노동을 마친 후 낫술을 마시던 30대 남성 2명이 술집과 길거리에서 각각 폭행을 일삼아 나란히 입건됐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0분쯤 광주 서구 한 번화가 술집에서 A씨(37)가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씨(38)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B씨를 데려오라”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종업원에게 폭언을 하며 술병 등을 마구잡이로 던졌고 이를 말리려 온 관리인 C씨(41)를 밀치고 벽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A씨가 찾던 B씨는 당시 또 다른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술집에서 나온 B씨는 술에 만취해 길을 배회했다. 그러다 이날 오후 4시40분쯤 아무런 이유없이 지나가는 여성 D씨(26)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결국 일용직 노동을 마친 후 낫술을 걸치던 동료는 나란히 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와 폭행, B씨에게는 폭행 혐의를 적용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어린조기 ‘씩쓸이’ 중국어선 2척 나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우리 측 해역에서 규정보다 출몰한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유망어선 요단어A호(97톤·단동선적·승선원 19명)와 요영어B호(98톤·영구선적·승선원 1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관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요단어A호는 전날 오후 1시7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북서방 약 90km 해상에서 그물고 기준규격(50mm 이하 사용금지) 보다 작은 41mm의 지망그물을 사용해 조기 750kg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요영어B호도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인근 해역에서 41mm 지망그물로 조기 1300kg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서 트럭 3중 추돌...3명 사망

21일 오전 11시50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136.6km 지점에서 1t 화물트럭 2대와 2t 트럭이 잇따라 추돌해 고속도로 갓길에서 사소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졌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도로를 달리던 2t 탠저 트럭이 풀베기 작업을 위해 갓길에 정차된 1t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1톤 트럭 2대가 연쇄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튀겨져 나간 1톤 트럭이 갓길에서 사소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을 덮쳤다.

근로자 3명은 다발성 골절 등 큰 부상을 입고 모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사소한 작업하던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주술의식하다가 딸 죽게 한 부모와 무속인

귀신을 쫓아내다며 주술의식을 하다가 딸을 죽게 만든 부모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무속인 A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B씨(27·여)의 부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15~18일 전북 익산 모현동의 한 아파트와 군산 금강하구 독에서 주술의식을 하던 중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18일 오전 10시께 B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B씨의 부모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숨진 B씨를 살피던 경찰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B씨의 얼굴과 양팔에 붉은 물질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내부 폐쇄회로(CC)TV와 무속인 A씨, B씨의 부모의 진술 등을 통해 증거 등을 확보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